

오어사(吾魚寺)에서 원효를 만나다 외 3편

황 동 규

오어사(吾魚寺)에서 원효를 만나다

1

오어사에 가려면
포항에서 한참 놀아야 한다.
원효가 친구들과 천렵하며 즐기던 절에 그냥 곧장 가다니?
바보같이 녹슨 바다도 보아야 하고
화물선들이 자신의 내장을 꺼내는 동안
해물 잡탕도 먹어야 한다.
잡탕집 골목 어귀에 있는 허름한 술집에 들어가
그곳 특산 정어리과(科) 생선 말린 과메기를
북북 찢어 고추장 찍어 먹고
금복주로 입 안을 헹궈야 한다.
그에 앞서 잡탕집 이름만 갖고
포항 시내를 헤매야 한다.
앞서 한번 멈췄던 곳에 다시 차를 멈추고
물으면 또 다른 방향,
포기할 때쯤 요행 그 집 아는 택시 기사를 만나야 한다.

포항역 근처의 골목 형편은
머리 깎았다 기르고 다음엔 깎지도 기르지도 않은
원효의 생애만큼이나 복잡하고 엉성하다.

2

허나 힘든 곳 없는 인간의 길 어디 있는가?
무엇이 밤 두시에 우리를 깨어 있게 했는가?
무엇이 온 밤 하나를 원고지 앞에서 허탕치게 했는가?
석곡란에 늦은 물 주고,
밤이 하얗게 새는 것을 보게 했는가?

3

포항서 육십 리 길
말끔히 포장되어 있다.
너무 부드럽게 달려
마음의 밑바닥이 오히려 벗겨진다.
허나 마음 채 덜컹거리기 전에
오른편에 운제산이 나타나고
오어호(湖)를 끼고 돌아
오어사로 다가간다.

4

가만!
호수 가득
운제산 큰 뽕대 하나가 거꾸로 박혀 있다.
정신놓고 바라본다.
아, 이런 절이!
누가 컷가에 속삭인다.

모든 걸 한번은 거꾸로 놓고 보아라,
뒤집어놓고 보아라.
오어사면 어땡고 어오사(魚吾寺)면 어떤가?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5

원효 쓰고 다녔다는
잔 실뿌리 섬세히 엮은 삿갓 모자의 잔해,
대웅전 한구석에서 만난다.
원효의 손가락도 만난다.
푸른색이 굳어서 검게 변한 낫 녹.

다시 물가로 나간다.
오늘따라 바람 한점 없이 고요한 호수에선
원효가 친구들과 함께 잡아 회를 찜을 잉어가
두셋 헤엄쳐 다녔다.
한 놈은 내보란 듯 내 발치에서 고개를 들었다.
생명의 늠름함,
그리고 원효가 없는 것이 원효 절다웠다.

풍장 35

친구 사진 앞에서 두 번 절을 한다.
친구 사진이 웃는다,
달라진 게 없다고.
몸 속 원자들 자리 좀 바꿨을 뿐,
영안실 밖에 내리는 빗소리도

옆방에서 술 마시고 화투치는 조객들의 소리도
화장실 가기 위해 슬리퍼 끄는 소리까지도
다 그대로 있다고.

풍장 36

내 마지막 기쁨은
시(詩)의 액셀러레이터 밟고 또 밟다
시계(視界) 좁아질 만큼 내리 밟다
한 무리 환한 참단풍에 두 눈 빼앗겨
벨트 맨 채 한계령 절벽 너머로
신나게 다이빙하는 일.
추락 만세! 시(詩)와 허공의 전신(全身) 맞비빔.
아 내 눈!
속에서 타는 단풍.

풍장 37

아침에 커피 끓여 마실 때
내 입은 위(胃)와 통화한다,
“지금 커피 한잔 발송한다.”
조금 있다가 위는 창자와 통화할 것이다.
“점막질에 약간 유해한 액체 바로 통과했음.”
저녁쯤 향문은 입에게 팩시[facsimile]를 보낼 것이다.
“숙주(宿主)에 불면증 있음.”